

『적정수준의 크래킹시설 확보해나가겠다』

정부, 국내油價는 경쟁력제고되는 선에서 조정

정부는 低硫黃·輕質化되어가는 국내석유수요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적정수준의 크래킹시설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崔震碩 동력자원부차관정책실장은 지난 11월 1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주최의 石油세미나에서 「低油價시대의 석유정책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저유황·경질화되어가고 있는 국내수요충족을 위해 유류정제시설의 효율성제고와 함께 경질유의 장기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重質油분해시설을 확보하고, 늘어나는 경질유수요 및 석유의존도감축을 위해 LNG 등 천연가스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崔실장은 또한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국내유가는 경쟁대상국의 유가수준 및 국내에너지源間의 가격구조를 감안,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선에서 결정하고, 산유국의 하류부문진출로 제품무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石油製品수출입제도를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仁浩 경제기획원물가정책국장은 「물가와 油價관리방안」의 주제발표를 통해 油價변동이 수출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油價수준별 대응방안을 마련, 관세 및 기금을 유동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국장은 제1단계로 국제油價가 배럴당 17달러 50센트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경쟁국의 대응방안을 감안하여 경쟁력을 갖는 선에서 국내油價를 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관세등으로 흡수, 재정수요에 충당하며, 제2단계로 국제油價가 배럴당 17달러 50센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관세율이나 석유사업기금징수액을 인하여 유가인상요인을 상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沈亨燮 재무부국제금융국장은 「혹자기조 전환기의 外換정책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도 환율정책은 현행 복수통화바스켓시스템에 의해 중립적으로 운용하고, 장기적으로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환시장의 정비·육성등 제반하부구조를 확립하며, 국제수지 흑자폭의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단기 자본도입을 억제하고, 외채를 조기상환하며, 해외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趙源天 油公이사는 「국제석유시장과 石油産業의 과제」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80년 이후 정유5社 석유사업의 6년간 누적이익이 총 302억원으로 연평균 50억원의 저조한 수익성을 보인 것은 그동안 原油가격상승과 환율상승등 油價인상요인이 국내유가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정유산업의 시설고도화와 에너지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油價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趙이사는 또한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소비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석유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기금은 종래와 같이 석유비축, 석유개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정유시설의 현대화사업등의 지원에도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油開公, 마두리유전 참여 持分 25%...천4백만달러 지원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데코 에너지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원유와 가

스를 개발중인 인도네시아 마두리鑛區의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석유개발공사를 지분참여방식으로 코데코 에너지경영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경제장관협의회는 지난 11월 6일

석유개발공사의 코데코에너지 지분참여비율을 25% (인도네시아분을 포함한 전체의 12.5%)로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1천4백53만7천달러를 석유사업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마두라 제1유전 개발중단 油價내려 경제성 없어

정부는 우리나라의 코데코에너지가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개발중인 인도네시아 마두라鑛區중 제1 유전은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아래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더 이상 추가지원을 않기로 했다.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데코에너지가 지난해 9월부터 개발해온 서마두라 제1 유전은 美國 버틀러社의 경제성조사용역 결과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10달러선일 경우 개발수입이 조업비의 80~95%에 불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1 유전의 개발은 현상태에서 마무리하고, 가스田 개발을 추진키로 방침을 결정, 지난 8월 15일자로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페르타미나社로부터 가스田개발권을 획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데코에너지의 경영관리체제로는 가스田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 코데코에너지를 한국석유개발공사에 흡수·합병시키기로 했다.

서마두라 제1 유전은 지난해 9월 27일 생산을 개시한 이래 하루 최고 1만8천2백29배럴까지 생산한 적도 있으나, 油田공학적인 연구없이 초기에 너무 많은 물량을 생산함으로써 압력저하현상이 발생, 올 1월 이후 하루 평균 2천~3천배럴 규모로 생산량이 격감한데다 국제원유가격의 급락현상까지 겹쳐 조업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마두라 제1 유전은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에서 4천2백만달러, 석유개발기금에서 2천만달러, 코데코에너지 자체에서 6천3백만달러 등 모두 1억2천5백만달러가 투자됐다.

마두라 제1 유전은 향후 2년동안 원유생산을 계속한다 해도 코데코가 투자한 자금 가운데 9백6만달러 정도밖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81년 인도네시아 서마두라油田개발에 처음 진출한 이래 지난 9월말 현재까지 6개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모두 2억5백25만2천달러를 투자했는데, 이중 수출입은행과 석유개발기금 등에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7천7백27만3천달러이고, 참여업체가 자체 조달한 금액은 1억2천7백97만9천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을 건별로 보면, 코데코에너지의 서마두라유전에 1억2천5백99만7천달러, 럭키금성과 韓國石油 개발공사가 공동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야당광구에 1천80만천달러, 최근 시추결과 경제성 유전발견실패로 사업을 끝낼 예정인 京仁에너지의 인도네시아 나우카광구에 5백74만달러 등이다.

이밖에 油公, 三煥企業, 現代, 석유개발공사등이 공동참여, 원유를 생산중인 北에멘 마리브유전에 5천2백52만2천달러, 油公이 현재 탐사 중인 수단의 나일 및 동골라광구에 8백93만4천달러, 大新石油의 美國 오클라호마주 육상광구에 1백25만8천달러가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8차 韓·印尼 자원협력위 LNG·原油교역등 논의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의 자원협력강화를 위한 韓·印尼 자원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果川 정부제2청사 동력자원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석유개발공사는 코데코에너지와 구체적인 지분참여 계약이 체결되는대로 코데코에너지 이사회에 수석부사장등 의결정족수 이상의 임원을 파견,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

해외油田개발에 총2억달러

81년 이후 6개사업에 투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해외유전 개발사업에 투자한 돈은 모두 2억5백25만2천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

韓國측에서 崔昌洛 동력자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총 15명, 인도네시아측에서 수브로토 광업에너지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총13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양국은 LNG 및 원유교역, 유전 및 가스田 개발, 유연탄 개발 및 교역, 기술협력 등에 관해 논의했다.

LNG 교역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은 LNG 가격이 他연료와 경쟁력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LNG 가격의 합리적인 하향조정을 위해 LNG 가격이 실제원유거래가격에 연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인도네시아측은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LNG 가격에 연동될 원유가격의 개념 정립에 대한 가격협상이 오는 연말까지 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마두라유전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88년 가스田 개발을 목표로 추진중인 이 천연가스의 인도네시아 발전소에 공급이 확정되어야 하며, 가스공급가격은 가스田 개발의 경제성을 고려,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원유교역은 양국간의 호혜적인 입장을 감안, 장기적으로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에너지소비 11% 증가

石油은 7.6% 늘어

에너지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의 총에너지소비량은 석유환산 4천 3백 6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가 늘어났다.

이같이 에너지소비가 늘어난 것은

11월 나프타공급가격 인하 工場渡 2.66%.....ℓ당 83원59전

대한석유협회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을 2.66% 인하,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공장도가격기준으로 10월의 ℓ당 85원87전에서 83원59전으로 2원28전이 내리고, 稅포함가격기준으로는 10월의 ℓ당 94원46전에서 91원95전으로 2원51전이 내렸다.

지난 10월중 국제나프타평균가격은 日本 C&F(운임포함조건) 가격으로 톤당 1백34달러58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9월의 1백37달러58센트보다 3달러가 내린 것이다.

현재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 매달 日本 C&F 가격의 전월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내나프타공급가격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다.

국내 나프타가격 변동추이

(단위: 원 / ℓ · \$ / t)

	국내가격(稅포함)	조정(%)	국제평균가격(日本C&F기준)
1985. 11	171.14	0.15	252.65
12	175.46	2.53	242.56
1986. 1	168.42	▲ 4.01	210.50
2	146.10	▲ 13.25	149.91
3	103.58	▲ 29.11	102.34
4	70.54	▲ 31.89	114.62
5	79.11	12.15	142.77
6	98.73	24.79	126.55
7	87.63	▲ 11.24	94.40
8	65.21	▲ 25.58	125.23
9	86.28	32.32	137.58
10	94.46	9.47	134.58
11	91.95	▲ 2.66	-

지속적인 산업생산증가와 이에 따른 물동량증가 및 국제번거링증가 등에 기인된 것이다.

에너지源別 소비동향을 보면, 石油은 非에너지油인 나프타가 16.6%증

가하고, 순내수증가에서 제외되는 국제번거링이 61.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수요처인 발전부문에서 24.4%가 감소함으로써 7.6% 증가에 그쳤으며, 原子力은 원자력발전

소 7 호기의 추가가동으로 계속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70.0%의 증가를 기록했다. 무연탄은 지난 9 월의 연탄가격인상의 영향등으로 10.0% 증가에 그쳤고, 유연탄은 발전용 수요의 미증으로 3.8% 증가에 그쳤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을 보면, 산업부문은 산업생산증가에 따라 7.4% 증가했으며, 수송부문은 산업출하증가와 차량증가로 2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정·상업부문은 무연탄이 8.8% 증가하고 취사용 LPG가 37.1% 증가하여 이 부문에서의 가스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輕油 소비는 21.5% 감소했다.

발전부문에서는 석유가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한 반면, 원자력과 유연탄은 각각 70.0%, 8.9% 증가했다.

서울시 도시가스

내년부터 LNG로 대체

서울시는 내년 1 월부터 수도가스를 LNG(액화천연가스)로 전면 교체하고 공급대상도 11만 5 천가구를 늘려 49만 5 천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도시가스 LNG화 및 공급확대계획에 따르면, 내년에 공급할 30만 9 천톤의 LNG를 내년 초까지 확보하고, LNG대체에 따라 사용가구의 노즐을 전면 개조하는 등 공급체비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를 위한 누설탐지기를 더 확보하는 한편, 예비정압기 17개소도 새로 설치하고, LNG 공급시설(메타링기)도 늘려 안전

공급에 대비키로 했다.

내년부터 LNG가 도시가스 공급구에 들어가면 현재 나프타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LPG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유가변동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는 데다 폭발하한선이 높아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잇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再許可규제 완화

都心 취소장소 재신청땀 허용

서울시는 주유소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 도심반경 5 km 이내에서도 허가취소된 장소에는 재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허가취소된 장소 및 터미널내에 설치허가할 경우 주유소간 거리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이와 같이 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것은 허가취소된 주유소의 기존시설을 재활용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 각종차량에 대한 주유편의를 제공키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허가취소된 주유소의 허가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거리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난 5 월 12 일 이전에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재허가가 가능토록 완화했다.

인도네시아産 L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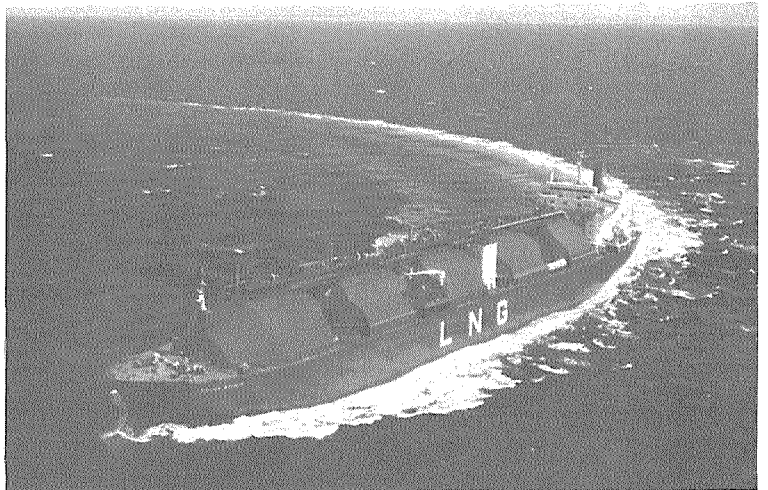
5 만 7 천톤 국내 첫도입

인도네시아産 LNG(액화천연가스)가 국내에 첫 도입됐다.

韓國가스公社는 지난 11 월 1 일 平澤 LNG인수기지에서 文熙晨사장을 비롯한 관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LNG船 입항식을 가졌다.

韓國가스公社는 이번엔 들여온 5 만 7 천톤을 저장탱크에 받아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거친후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의 40만가구에 공급하고, 보급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産 LNG는 내년부터 2 천년까지 20년동안 연간 2 백만톤씩 도입된다.



“국산不凍液 外製와 차이없다”

공업진흥청 성분·品質 비교

겨울철에 많이 쓰이는 자동차용 부동액은 국산과 외제품의 품질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제 선호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油公, 湖南精油, 極東셀, 東亞특수공업 등에서 생산하는 국산품 4개와 프레스톤(美製), 모빌(日製) 등 수입품 2개를 어는 점, 끓는 점, 사용중 기계의 부식성등 모두 27개 항목으로 나눠 품질을 비교한 결과 성분, 성능, 품질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우수했는데 가격은 40톤통에 국산은 5천5백원 안팎, 외제는 9천원이었다.

가짜휘발유 제조원료

사용사업체 특별관리

환경청은 유사휘발유의 제조·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유사휘발유 제조에 사용되는 톨루엔·메틸알콜을 사용하는 1천8백69개업체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사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유사휘발유 사용으로 대기오염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유사휘발유 원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그동안 톨루엔·메틸알콜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톨루엔사용업체 1천2백72개, 메틸알콜 사용업체 5백97개의 명단을 확보하고, 해당도시 및 환경청 점검

油價하락으로 올해 성장을 1.3% 높여져 企劃院분석, 도매물가 3.2% 하락

국제원유가격 하락으로 우리나라는 올해에 경상수지에서 모두 11억5천만달러가 개선되고 경제성장률도 1.3%가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기획원 분석에 따르면,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원유도입액이 약 21억8천만달러가 경감되고, 세계교역 신장에 따라 수출액이 약 3억2천만달러 늘어나 모두 25억달러가 개선되는 반면, 수출 및 소득증대에 따라 유발수입이 약 9억5천만달러 늘어나게 되고, 산유국의 재정악화에 따라 해외건설수입이 약 4억달러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11억5천만달러가 개선될 전망이다.

물가영향은 2차례에 걸친 국내油價인하로 도매물가는 약 3.2%포인트, 소비자물가는 약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되며, 경제성장률은 경상수지개선에 따른 성장효과만을 감안할 때 약 1.3%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에 통보, 이들 업체에 대해 정기 점검은 물론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위기에 대비』

盧총리 절약축진대회서 강조

86년도 전국에너지절약 촉진대회가 지난 11월 10일 盧信永국무총리, 崔昌洛동력자원부장관을 비롯, 산업체관계자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국립극장에서 열렸다.

盧총리는 이날 대회에서 치사를 통해 『에너지절약은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국민적 과제』라고 전제, 『국제에너지수급과 가격사정이 호전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용효율을 보다 높여 언제 어떠한 에너지위기가 닥쳐온다 하더

대형住宅 연탄사용 제한

石炭事業法 시행령 예고

동력자원부가 지난 11월18일 입법예고, 오는 12월31일부터 적용케 되는 석탄산업법시행령(안)에 따르면 연탄제조업은 공해가 수반되고 현대화와 대단위화가 필요한 업종임을 감안,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市道지사는 연탄공장을 허가하기 전에 환경보전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성여부를 환경청과 반드시 협의토록 했다.

이에따라 연탄공장의 허가요건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 저탄장 4천평방미터이상, 동력발전기 10

9월 원유도입물량 감소 油價상승으로 도입금액은 증가

9월중 국내원유도입량은 17,059천배럴로서 도입금액은 FOB (본선 인도가격) 기준으로 176,969천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8월과 비교할 때 원유도입량은 10.37% 감소한 반면, 도입금액은 오히려 5.56% 증가한 것이다. 이는 원유도입단가가 지난 8월의 배럴당 8달러 81센트에서 9월에는 10달러 37센트로 배럴당 1달러 56센트가 올랐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9월까지의 원유도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5%가 증가한 총 168,648천배럴로서, 이중 138,910천배럴이 내수용이다.

같은 기간동안 원유 도입금액은 유가하락과 低價의 현물원유도입증가(108.9%)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7% 감소하였으며, 내수용원유도입증 장기계약과 현물의 비율은 각각 45%와 55%를 차지하였다.

대이상, 자본금 3억원이상, △市区은 저탄장 2천평방미터이상, 동력 운전기 2대이상, 자본금 1억원이상, △郡이하지역은 저탄장 6백60평방미터이상, 동력운전기 1대이상, 자본금 5천만원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또 시행령은 연탄수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동자부장관은 대도시에 신속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주택에 대해 연탄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동자부장관고시로 규정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탄의 질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연탄이 일정한 기준열량에 미달할때는 최고 5백만원까지의 과징금을 연탄제조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2회 정유5사 합동등반

운악산에서 90여명 참가

국내 정유5사(유공, 호유, 경인,

쌍용, 극동)와 석유협회직원 90여명

은 지난 11월 2일 운악산에서 제2회 정유사 합동등반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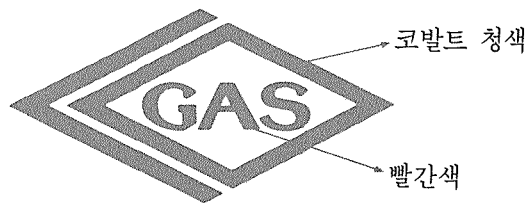
작년에 극동에 이어 유공이 주관한 이번 합동등반은 각 정유사 등산반원들이 서로 모여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정유사간 산악동호인들의 우의를 다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합동등반은 내년에는 쌍용, 그리고 이듬해는 호유가 주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油公, 대리점 최고경영자세미나 공동체 의식 강조

油公은 지난 10월 16일과 22일 각 2박3일동안 경주 코오롱호텔과 경주 조선포텔에서 제7회 대리점 최고

油公가스 심벌마크 제정 석유와 가스산업 형상화



(주)유공가스는 회사의 심벌마크를 확정하였다. 동 마크는 회사의 주업종인 가스의 원생성지인 석유에서 GAS가 분출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는 석유의 한문 첫글자 石을 변형한 것으로 석유와 가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며, 이중 ◇는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고 빛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기업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GAS는 독특한 영문 로고(Logo)로 표시하여 주업종이 GAS인 국제적이고도 독자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석유사업영업부문 주관으로 실시된 이 세미나에는 전국의 유공계열 일반석유류, 병커링, 아스팔트, 용제, LPG대리점 사장등 총 104명이 참석하였으며, 김항덕 油公사장은 만찬 환영사를 통해서 그동안 대리점 사장들이 유공에 베풀어준 호의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대리점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곧 유공가족의 문제로 여기고, 더불어 해결하여 나간다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모임이 공존공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공장 전학, 건강관리에 관한 세미나 및 친선골프대회와 양산 통도사관광 등을 통하여 유공가족으로서의 상호 유대와 결속을 다졌다.

油公, 창립기념 체육대회 모범사원 표창도 실시

油公은 지난 10월 19일 회사 창립 24주년기념 종합체육대회를 서울 오류동 럭비구장에서 전사업장 선수 및 가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지난해 우천으로 열리지 못하여 2년만에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본사, 공장, 지사, 저유소등 전사업장의 임직원이 5개부문팀으로 나뉘어 축구, 테니스, 800m계주 등 3개종목에서 열띤 경기를 벌이며 상호 우의와 일체감을 다졌다.

또한 이날 본사 및 전사업장에서 선발된 모범사원 12명에 대한 표창

식도 가졌다. 표창을 받은 모범사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김문수(종합기획부 기획원)
- ▲ 임근호(기술지원연구소 원유연구기사)
- ▲ 김영진(경리부 세무과장)
- ▲ 김정옥(총무부 전화교환원)
- ▲ 남명복(업무부 업무1 과장)
- ▲ 이헌구(서울지사 판매원)
- ▲ 이기철(부산저유소 해상작업반장)
- ▲ 송명식(석유화학부 석유화학 개발기사)
- ▲ 유익상(기술부 공정기술 1 과장)
- ▲ 정 활(동력실 동력 1 과장)
- ▲ 김희동(석유정제부 제유 2 과장)
- ▲ 이재훈(정비부 특수정비원)

油公, 수송업무 전산화교육 수송관리등에 큰 도움

油公의 수송업무전산화 실무자 교육이 지난 10월 29일 본사 시청각교육실에서 공장, 저유소 실무자, 수송주재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송부 및 전산부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수송업무 전산시스템의 1차개발 완료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동시시스템의 개발로 인하여 선박, 철도, 자동차, 송유관수송등 모든 수송업무의 효율제고 및 판매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

油公, 장애자등기 걷기대회 본사직원 30여명 10km 걸어

油公 본사직원 30여명은 지난 11월 9일 양재동과 남서울대공원을 잇는 10km 구간에서 열린 장애자 돕기

기금마련 서울시민 걷기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88년도 장애자올림픽 지원의 일환으로 열린 것인데, 이 행사에 참가한 본사직원들은 성금을 전달하고 걷기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등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湖油, 분임조활동 금상획득 거북이분임조 전국 QC대회에서

湖油 이천공장 정비부 분석기계과 거북이분임조(조장: 박준규의 7명)가 1986년도 전국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서 대망의 금상을 획득하였다.

공업진흥청에서 주관하여 지난 11월 3일, 4일 양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80개 분임조가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였는데 湖油의 거북이분임조는 "pH측정장치 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대기업무부 47개팀 가운데 영예의 금상을 획득하여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상장 및 부상을 받았다.

湖油, 공장체육대회 노조주최, 우승에 정비부

湖油는 지난 10월 25일 공장 임원진 및 노동조합 임원을 비롯한 많은 사우가 참가한 가운데 제 4회 노동조합주최 공장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축구, 배구, 족구, 8km 단축마라톤, 줄다리기, 800m 릴레이, 야구공 멀리던지기 게임, 행운권 추첨등 다

새로운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 종합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합우승: 정비부

준우승: 운영부

3 위: 기술/설계/안전, 환경 / 전산기획/건설부

湖油, 이한경과장 표창받아

소방의 날 내무장관으로부터

湖油 공장안전 환경관리부 이한경 안전과장은 지난 11월 1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공장 방화안전 관리자로서 직장 방화안전관리에 노력하여 자율소방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김중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湖油, 낚시반 바다낚시대회

대어상에 박근세 사우

湖油 공장 낚시회(회장 남상오 설계 1과장)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동안 여천군 남면 금오도 일원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바다낚시대회를 가졌다.

가을바다속에 찌를 드리우고 손끝을 스치는 짜릿한 감흥을 맛본 낚시동우회원들은 수확한 고기중 감성돔을 주종으로 시상식을 가졌는데, 1등 생산부 박근세(36.0cm), 2등 생산부 김승주(34.8cm), 3등 설계부 나기주(28.0cm) 사우등이 영예를 차지하였다.

한편 낚시대회가 끝난 뒤 가진 차기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장진홍 운영부 해상출하과장이, 총무에는 정비부 유인권 사우와

생산부 박근세 사우가 선임되었다.

湖油, 공장추계 바둑대회

우승에 나기주 사우

湖油는 86년도 공장 추계바둑대회를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19일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갑조 18명, 을조 17명, 병조 32명 등 총 67명의 사우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공장 바둑반내에 있는 기력향상모임인 빈삼각회가 갑조 1, 2위를 배출하여 주목을 끌었다.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갑조(3급 이상)

우승: 나기주(공장설계부)

준우승: 주용구(공장경리부)

3 위: 주인호(공장총무부)

◇ 을조(4~6급)

우승: 김기익(공장생산부)

준우승: 박광순(공장총무부)

3 위: 유재영(공장기술부)

◇ 병조(7~9급)

우승: 박기정(공장총무부)

준우승: 송무전(공장정비부)

3 위: 강옥봉(공장운영부)

湖油, 학생에 현장실습 제공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湖油 공장은 지난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1986년도 제4기 학생현장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실습의 참가자는 조선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화공과생 5명과 송원실업전문대학 전자과생 5명등 10명의 실습생들로 전공과별로

조를 나누어서 공장강의실 및 작업현장에서 해당 감독자들의 주관으로 실습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에서 배운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생소한 일선 산업체 현장에서 적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임하였다.

京仁, 저축의 탑 수상

제23회 저축의 날 맞아

京仁에너지는 지난 10월28일 제23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저축의 탑 동탑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비상계획부 이공노사우는 재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동사는 평소 사장이하 전종업원이 일치단결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저축추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온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저축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저축의 탑을 수상한 것이다.

京仁, 과장급 인사이동

박완식과장등 13명 승진 및 전보

京仁에너지는 86년 정기승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장급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다.

- 박완식(기획관리실 기획과장)
- 김덕한(기획관리실 관리과장)
- 김용래(업무부 업무과장)
- 정승진(자원개발부 자원개발과장)
- 정병국(원유부 원유과장)
- 안수화(원유부 원유기획과장)
- 노상현(전력사업부 전력사업과장)
- 김준(영업관리부 관리과장)
- 임영택(영업관리부 기획과장)
- 이종권(직매부 직매1과장)

김계중(판매부 부산영업소장)
김순모(공장총무부 새마을과장)
윤수중(기술부 기계장치설계과장)

京仁, 국방부로부터 감사장 군수조달에 기여한 공로로

京仁에너지는 군수조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유류를 적기 적소에 납품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증강에 이바지한 공으로 조달본부 창설 제16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3일 국방부 조달본부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京仁공장 지역사회활동 전개 상거래질서 확립 캠페인등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근 석남동 거북시장에서 명량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현수막 설치, 가두캠페인, 상점방문을 통하여 명량한 상거래 질서확립 내용을 캠페인하여 상가 및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京仁, 모범사원 격려 부부등반 3박 4일 여행

京仁에너지는 금년도에 뽑힌 모범종업원들에게 부부등반으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 및 오대산과 용인 등으로 위로관광을 실시하였다. 이는 그간의 회사와 그룹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치하하고 격려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京仁, 김용덕 생산부장 에너지절약 공로상 수상

京仁에너지 김용덕 생산부장은 지난 11월 10일 국립극장에서 개최된 에너지절약 추진대회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절약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京仁, 자율소방체제 합격 관계직원 내무부 표창받아

京仁에너지 김동화 안전과장은 11월 1일 인천 시민회관에서 거행된 86년도 소방의 날 불조집 대회에서 평소 직장방화안전관리에 헌신 노력하여 직장의 자율소방체제확립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京仁, 본사 탁구대회 개최 우승에 김용래·윤병로사우조

京仁에너지 본사 탁구동우회는 지난 11월 8일(토) 본사 탁구장에서 제2회 탁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무작위 추첨으로 복식조를 형성, 10개조로 나누어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 예상 우승후보를 물리치고 김용래·윤병로사우조가 우승하여 직원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준우승은 김두영·이황규사우조가 차지하였다.

雙龍, 사내 퍼스컴 경진대회 대상에 공장관리실 송인표

雙龍精油는 제3회 사내 퍼스컴경

진대회를 지난 10월 24일 본사 1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본사, 공장, 영업소, 저유소의 각부서에서 1건이상 참가를 원칙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실기심사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2차 실기심사에는 총 18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영예의 금상은 '비용예산관리'를 출품한 공장관리실의 송인표사우가 차지했으며, 은상과 동상은 본사 기술연구팀의 이창상사우와 대구영업소의 임철 사우가 각각 차지했다.

雙龍精油의 퍼스컴 경진대회는 사무자동화계획에 따른 퍼스컴에 대한 숙달 및 이용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4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향상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雙龍, 체육의 날 행사 가져 공장 및 본사에서 체육대회

雙龍精油는 지난 10월 13일 '체육의 날'을 맞아 본사·영업소에서는 부서별로 등산·테니스등 자체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온산공장에서는제 6회 사장기쟁탈 공장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서별로 6개팀이 축구, 배구, 야구, 줄다리기, 이어달리기(500미터) 등 5종목에 걸쳐 토너먼트를 벌인 이날 대회에서 정유생산부는 축구, 배구, 줄다리기의 종목우승과 함께 종합득점 270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3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야구우승과 축구, 이어달리기에서 2위를 차지한 공무부에 돌아갔다.

또한 이번 6회 대회부터 신설된 6키로미터 단축마라톤경기에서는 총 77명의 사우가 참가하여 품질관리실의 김전홍 사우가 우승을 차지했으며, 47명의 사우가 완주했다.

이날 대회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으며, 폐회식이후 2시간동안 자축파티도 가졌다.

雙龍, 벼베기 농촌일손돕기

6일간 150여명 참여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연인원 150여명이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나서 경남 울주군 관내 온산, 농소, 강동, 웅촌면지역의 민·관·군합동 벼베기 활동에 참여했다.

雙龍 민방위대 표창받아

민방위대창설 11주년 맞아

雙龍精油 온산공장 민방위대 이선중 대장(공장장)은 지난 9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11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雙龍, 실험계획법 기초교육 공장기술사원 30여명 참석

雙龍精油 온산공장은 지난 9월 30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박성현교수를 초빙, 실험계획법에 의한 업무확대 및 적용·추진을 위한 실험계획법 토론회와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화공, 전기, 기계분야등 희망사우 30여명이 참석했다.

極東,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11월 3일 이사회에서

極東石油(株)는 지난 11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6명의 임원에 대한 승진 및 보직변경인사를 단행하였다.

李相哲: 부사장(총무, 증설관리 자재담당)

鄭東元: 전무→부사장(재정, 경리 담당)

高錫烈: 상무→전무(건설, 훈련담당)

權憲相: 상무→전무(판매담당)

黃運泳: 상무→전무(업무, 무역부 무담당)

李武龍: 이사→상무(총무, 증설담

당)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로 직원 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실시한바 있다.

▲ 부장→이사
金安球(증설QA/QC 담당)
辛源富(증설 설계담당)

▲ 차장→부장
朱永泰(증설부)
金明學(증설부)
李容圭(증설부)

▲ 과장→차장
金燦圭(증설부)
金濟和(증설부)
魯海鍾(판매기획부)
許祥浩(지사 판매부)

極東, 자체 소방능력 최우수

부산시 소방본부 평가에서

極東石油 부산공장은 지난 10월 16일 부산시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86년도 자체 소방차 보유업체 소방능력 평가결과 부산시내 전체 대상업체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공장 훈련장면이 釜山 MBC-TV '350만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11월 2일(월) 아침 방영되었다.

